

곡성군 '일·휴식 병행' 워케이션 사업 확대 나서

워크빌리지인 곡성 추진 23개 기업 "재방문" 밝혀

곡성군이 자연속에서 직장의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vacation)' 사업을 확대한다.

곡성군은 지역형 워케이션 사업인 '워크빌리지 인(in) 곡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해 심청한옥마을에서 워케이션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기업인들이 심청한옥마을에서 4~5일 정도 머물며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구축했으며 소회의실과 대회의실 등을 마련해 제공했다.

신입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퇴근 후 개인 생활 보장'을 위해 1인 1실을 제공했다. 직장인들은 자연 속에 있는 심청한옥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주변 관광지 등을 여행했다.

워케이션 사업 첫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42개 기업 187명, 지난 4월 27일부터 6월까지 23개 기업 임직원 140여명 등 최근까지 110개의 기업이 심청한옥마을에서 실적을 쌓았으며 참여 기업 중 98%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곡성군은 하반기부터는 개발자·디자이너·기획자 등 전문 직군을 대상으로 포레스트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한 프로그램인 '워크빌리지 인(in) 곡성'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향올래 공모사업인 '워케이션 분야'에 선정되면 심청한옥마을의 유휴시설들을 보수하고 확장할 계획이다.

옛 삼기중학교 부지에 가족제휴형 농



곡성군이 자연속에서 직장의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한다. 곡성군 제공

촌유학과 워케이션 청년 거주 시설을 조성해 단기간 머무르는 형태를 벗어나 장기적으로 곡성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워케이션 참여 직장

인들은 자연속 업무 수행으로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하는 기분이라고 했다"며 "대기업이 곡성에 머물며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영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영광군, 각 지역농협 신청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농작물 재해보험 '벼' 품목을 오는 23일까지 각 지역농협에 가입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영광군에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벼, 콩, 참다래 등 3개 품목으로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콩은 7월21일, 참다래는 7월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에 대한 90%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기농 인증을 한 농가에 한해 자부담료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중이다.

지난해에는 벼 재배 농가 3794농가(8948ha)가 가입해 가입률 91%로 6년 연속 도내 가입률 1위를 차지했고 재해피해로 24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원되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다.

영광=김도윤 기자

담양 담빛영화관 24일 운영 재개

담양 작은영화관인 '담빛영화관'이 3개월간 임시 휴관을 마치고 오는 24일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담빛영화관은 2021년 8월 군민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열었으며 개관 이래 누적 3만6000명이 다녀갔다.

이번 재개관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 체험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관 하루 전 23일 당일 무료 영화상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료 영화 상영은 전화예매는 불가하며 선착순 현장발권으로만 관람할 수 있다. 상영시간과 상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olcinema.co.kr>)에서 확인하거나 영화관(061-382-0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



곡성 낮같이 봉사활동 곡성군이 옥과면 수리마을에서 '찾아가는 희망복지 이동서비스'를 실시했다.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다림돌봉사단은 낫, 칼, 가위, 예초기날을 갈아 새것처럼 탈바꿈시켰다. 곡성군 제공

'오천 워터아일랜드' 개장 순천정원박람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한창인 오천그린광장에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이 열렸다.

18일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순천시장)에 따르면 전남 오천그린광장에서 '오천 워터아일랜드'가 개장했다.

워터아일랜드는 오천그린광장 내 연면적 1만㎡ 규모로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에어볼장, 그늘막 쉼터, 샤워실 등이 갖춰진 물놀이 콘텐트다.

개장식은 정원박람회장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 조직위 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오형숙 시의원, 강형구 의원, 김미연 의원, 이향기 의원이 참석했다.

노관규 이사장은 "지형 안정화와 그늘막 설치로 시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워터아일랜드는 17일부터 8월15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물놀이장 시설점검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해 휴장한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여름을 맞아 '가든 캠프'라는 주제로 '빙하정원', '개울길광장', '정원드림호' 등 분수와 개울로 시원한 정원을 보여주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귀농어귀촌 1번지 조성 행정력 강화

지역민 상생 시책 마련

고흥군이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지원 등 귀농어인들이 지역민과 상생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인들의 이주 준비에서 실행,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민과 화합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토대로 귀농어귀촌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 전일장려 지원책을

통해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귀농어귀촌인이 고흥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다양화하고 있다.

고흥이주를 준비하는 귀농어귀촌인들이 사전 고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주 전 '살아보기' 체험을 해 볼 수 있도록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청년 프로젝트 고흥에서 3달 살아보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 실행 과정에서는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향청년 정착장

려금 지원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 후 귀농어귀촌인과 원주민 간 갈등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 등 융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배 귀농어귀촌인 16명을 '정착도우미'로 지정해, 귀농어귀촌인에게 정착 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한 농어업 기술과 지식 등을 전수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은지 기자

순천시, 웰니스 노르딕 워킹 100일 체험 운영

25일까지 100명 선착순 접수

순천시가 시민 건강 걷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순천의 자연경관을 보며 매일 함께 걷는 '순천 웰니스 노르딕 워킹(복유립식 걷기) 100일 체험단'을 26일부터 운영한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체험단은 매일 오전 6시30분에 팔마대교 아래 에어로빅

광장에서 만나 복유립형 양손 지팡이를 활용한 스트레칭과 함께 팔마대교에서 꿈의 다리까지 왕복 10km를 걷는다.

복유립식 걷기 함께하기 외에도 사전·사후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매월 1회 걷기 건강강좌 등을 100일간 운영한다.

100명 선착순 접수하며 복유립식 걷기 100일 체험단 참여를 원하는 순천시민은 25일까지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유립식 걷기는 양손 지팡이를 이용해 걸으면서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과 관절의 부담을 감소시켜 준다. 근육의 90%를 사용하면서 근육은 늘리고 체지방은 감소시켜 주는 운동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습지, 동천, 봉화산 둘레길, 와온해변, 화포해변 등 전국의 대표적인 웰니스 건강명소를 함께 걸으며 시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며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계절근로 참여 농가 수시 모집 화순군, 최대 8개월 근로 가능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모집을 진행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 또는 영농법인, 농업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작물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 배정이 가능하다.

고용주로 참여하는 농가는 계절근로자가 거주할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갖춘 숙소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지급 및 휴식 시간과 휴일 등을 보장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된 인원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입국하여 최대 8개월 동안 근무가 가능하다. 화순=김선중 기자

국립공원 지역 1.285㎢ 해제 여수시, 금오도 등 일대

여수시 금오도와 거문도 백도 지구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일부 1.285㎢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다.

환경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공원계획 변경이 4월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고시됨에 따라 28일 이후 해제될 예정이다.

최종 해제 구역은 금오도 지구 1.25㎢, 거문·백도지구 0.035㎢다.

해제지역 대부분이 남면 주민의 사유지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해제 대상 지역 중 사유지가 있는 주민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거나 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면 구역영역 편입·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